

한빛원전 3·4호기 가동중지 3년 사과없는 건설사·대책없는 한수원

구멍 수백여개 발견 시공 현대건설 “시간 달라” 한수원은 재가동 정비 방지 지역민들 불안·고통 고조

영광 한빛원전 3·4호기가 멈춰선 지 2·3년이 흐르면서 지역민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임에도, 3·4호기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대국민 사과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수백개의 공극(구멍)이 확인됐지만 원전설계·시공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사과도 없이 '구조물건전성평가' 등 해당 원전의 정비업무를 다시 맡기로 하면서 지역민들이 평가를 거부하며 반발하는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수원도 주민 불신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원전 정비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 운영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민(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11일 "현대건설이 한수원의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공극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 요청에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원전 결함 발생에 대한 책임 분담을 논의하기 위해 현대건설측에 모두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원전 3·4호기 부식 운영에 대한 지역·대국민 사과 공동 발표를 요청했으나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한빛 3호기(가압경수형·100만 kW급)의 경우 지난 1989년 6월 1일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5년 10개월) 건설했고 4호기(가압경수형·100만 kW급)도 1996년 1월 1일(6년 7개월) 완공했다. 현대건설은 한빛3·4호기 건설 이후 국내 원전 총 9기(월성2·3·4, 한빛5·6, 신고리3·4, 신한울 1·2)의 건설을 맡게 되면서 원전 시공 대표기업으로 도약했다.

이후 3호기에서 124개, 4호기 140개의 공극이 발견되면서 여태껏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대건설은 그러나 한빛 3·4호기 공극 등 원인 조사 과정에서 시공 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지역민들은 특히 시공사인 현대건설측

이 결합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나 사과도 없이 부실한 공사로 발생한 공극을 자신들이 메우고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구조물건전성 평가'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수원의 무기력한 대응 행태도 지적되고 있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 등 결함 문제와 관련, 지난 국회 때 국회 제안으로 설계·감리·시공 등 참여기관 4곳과 원안위·민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역민 반발 등으로 단 한 차례의 추속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한빛3·4호기 재가동을 위한 안전 점검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당시 설계와 감리, 시공을 담당한 주체들은 30여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 국민들께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빛 3호기는 지난 2018년 5월 11일 가동 정지 후 886일이나 그대로 멈춰있고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18일 가동을 멈췄다. 1244일(10월 12일)이 지나도록 여태껏 정비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안 퍼플섬의 보라빛 다리 연휴기간인 지난 10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퍼플섬으로 이르는 신안군 박지도의 보라빛 다리를 건너며 한가롭게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생활습관과 치매 연관성 밝힌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선정 국가 지원 연구비 18억원 확보 수면·걸음걸이로 치매 조기 예측

고령자의 걸음걸이와 수면 형태 등 생활습관과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11일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생활습관과 치매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에 돌입한다.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최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모에 '치매 위험도 및 조기예측을 위한

라이프로그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총 연구비 18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 수면상태(REM수면, 얕은수면, 깊은수면, 수면패턴)와 걸음걸이(걸음 수, 소모칼로리, 운동유형) 등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수집된 생활데이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예측하는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사업에는 연구책임자인 김정수(조선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를 필두로 단장인 이진호(의생명과학과) 교수와 광주과학기술원 김재관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또한 치매 전문 기업인 ㈜로

완, 빅데이터 전문 회사인 ㈜에코인사이트·㈜비은사이노베이터 등도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며, 조선대병원에서 김후원 교수와 4명의 의료진과 전남대병원 송호천 교수, 광주보훈병원 오형균 진료실장 등이 연구담당자로 함께한다.

조선대학교 이진호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장은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의 치매연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형 뉴딜의 데이터 대표 사업으로, 산업계와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구축과 공개를 통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 디지털 뉴딜 사업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뉴스워크지 선정 '월드 베스트 암병원'

서울 5대 병원과 함께 선정 비수도권 종합병원으로 유일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신명근·사진)이 최근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뉴스 위크'가 선정한 '월드 베스트(World's Best) 암병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미국의 '뉴스 위크'지는 독일의 글로벌 시장조사 및 소비자 데이터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공동조사를 통해 암, 심장질환, 내분비질환 등 3개 전문분야별 세계 최고수준의 병원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스타티스타'가 수만명의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암치료 분야에서 아산병원·삼성병원·서울대병원·강남성모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5대 병원'과 함께 '월드 베스트 병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국내 비수도권의 암병원으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당시부터 암치유병원으로 특화, 최첨단 의료장비와 협진체제를 선구적으로 도입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JCI 국제인증증을 2010년과 2013년 획득, 세계적인 수준의 환자안전과 의료질을 일관되게 공인받았다.

병상당 암수술 전국 1위, 분야별 암치료량 매년 최고등급, 수도권병원들보다 뛰어난 암환자 생존율,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 등으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대형병원들 중 유일하게 원내에 대규모 '치유의 숲' 등 힐링 인프라도 조성했다. 전국 병원 중 '사계절 가장 아름다운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입원환자들이 경험한 의료서비스 평가'에서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또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난 2018년말 지정되기도 했다.

더불어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홍보를 위해 올해 발간한 '럭셔리 트래블 가이드 북'에 국내 대표 의료기관 3곳 중 한 곳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책자엔 "한국에서 유일하게 삼림으로 둘러싸인 전원도시내 암특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우수한 의료역량을 물론 휴양까지 가능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추천돼 있다.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암치유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료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돼 뿌듯하다"며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담임 떠맡는 기간제교사 급증

최근 5년간 5% 넘게 늘어 정규직교사 기피가 주 원인

광주·전남지역 학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에 따르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15.6%와 10.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16년에 비해 각각 5.5%와 5.7% 증가한 것

로 가파른 상승세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는 근본적으로 기간제 교사 비율 자체의 증가도 있지만, 정규직 교사들의 '수업 외의 과도한 업무 기피'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업무와 학부모들과의 잦은 마찰 등을 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사이에선 다음 해 제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실제로 인성지도에 힘을 쏟아야 하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의 경우 담임 기피 현상이 더욱 비밀비재해,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학교 18.64%, 고등학교 13.9%, 초등학교 1.91%였던 기간제 담임비율이 2020년 중학교 23.81%, 고등학교 21.01%, 초등학교 3.17%로 중학교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경찰, 백순선 복구의원 소환 조사

배우자 업체 구청 계약 파낸 혐의
광주시 복구 백순선의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에 구청 수의 계약을 파낸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 이외에도 다른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11일 광주시 복구회의와 광주지방경찰청

청 등에 따르면 백순선 의원은 지난 7·8일 양일간 광주지방경찰청 청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구청의 수의계약을 파낸 혐의에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양일간의 조사에서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11건, 6700만원 상당의 복구청 수의계약을 파낸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건으로 피의자 전환 여부 등 상세 내용을 설명해줄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 등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추가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7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물공제조합 광주사업소가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2020. 8. 1부터 독립된 지부로 승격하여 새 출발합니다.

화물공제조합
경남지부
광주사업소
(2007. 9. 1 ~)

➔

화물공제조합
광주지부
(2020. 8. 1)

- 광주지역 조합원의 자긍심 고취
- 광주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활한 공제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광주지부로 거듭나겠습니다."**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김 옥 상



대구화물협회
부회장 김 동 열



인천화물협회
부회장 김 재 선



대전화물협회
부회장 김 기 국



전남화물협회
부회장 백 범 기



서울화물협회
간사 신 인 연



울산화물협회
간사 김 명 기



경기화물협회
간사 김 관 일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김 상 호



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최 현 국



부산화물협회
이사장 신 인 연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김 상 호



울산화물협회
이사장 김 명 기



전남화물협회
이사장 백 범 기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신 인 연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최 현 국



제주화물협회
이사장 김 명 기



안남화물협회
이사장 김 관 일



세종화물협회
이사장 김 명 기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 최 현 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